

# 회원사 동정

## ◇ 회원사 소식 ◇

### 데이콤

#### 데이콤, 10월초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

한국통신에 이어 데이콤도 오는 10월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콤(사장 손익수)은 10월 1일부터 PC통신망 천리안을 통해 "천리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우선 전국의 천리안 가입자들이 인터넷상의 주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거꾸로 전세계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천리안 주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과 천리안간 전자우편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분당 30원의 통신요금을 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천리안에 접속하는 경우는 분당 15원의 통신요금과 정보이용료를 낸다. 전자우편 서비스는 별도 요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데이콤은 천리안 인터넷 서비스 외에 일반가입자를 위한 "데이콤 인터넷 서비스"도 10월 1일부터 별도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통신의 한국인터넷(KORNE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PC나 근거리통신망(LA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요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

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통신의 인터넷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전국 11개 도시와 인근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며 전화번호 "01420"으로 연결되는 하이네트-P망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 데이콤, "폰 EDI 서비스" 개발·本格서비스

데이콤(사장 손익수)은 최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도 전화를 통해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콤 폰 EDI서비스"를 개발,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계약업체의 영업사원이나 체인점, 약국등의 소규모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전화다이얼로 입력하면 된다. 이 정보는 데이콤의 EDI시스템을 통해 공급업체의 주 컴퓨터에 전송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급업체나 이용자 모두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용요금은 월 3만원이내에서 결정할 예정.

#### 데이콤 동국전자 5일부터 실권주 공모

데이콤과 동국종합전자가 5일부터 10일까지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데이콤은 지난 1일까지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에서 실권된 7만 4천 8백 50주(실권을 14.14%)를 대상으로 6일과 7일 양일간 공모청약을 받는다. 데이콤 신주의 발행가는 7만 2천 4백원으로 구주의 3일종가인 7만 3천 9백원과 큰 차이가 없다. 주간사를 맡은 한신증권측은 최근 데이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 구주와 가격차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율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투자자들이 데이콤

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동국종합전자는 실권된 6만2천2백61주(실권율 28.3%)를 대상으로 8일과 9일에 일반 청약에 받는다. 주간사는 럭키증권이 맡았으며 신주발행가는 9천4백원으로 3일증가인 1만1천2백원의 약 80% 수준이다. 동국전자는 동국무역그룹의 전자업체로 카스테레오와 소형컬러TV 등을 생산하며 스캐너, 팩시밀리, CATV장비등 정보통신부문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이회사의 '94년 반기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1.7%증가한 1백 53억원이며 순이익은 60%증가한 1억 6천4백만원을 나타냈다. 동국전자측은 올 전체매출은 24%증가한 4백억원을, 순이익도 1백 6%늘어난 7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PC통신

### 한국PC통신, 올 연말까지 접속회선 8천회선으로 증설

최근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PC통신(사장 김근수)이 내부정비를 끝내고 서비스개선에 서둘러 나섰다. 한국PC통신은 우선 PC통신망 하이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 연말까지 현재의 접속회선을 5천 3백 60회선에서 8천회선으로 증설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1천2백회선(서울 7백회선, 지방 5백회선)은 1만4천4백bps(초당전송속도)급의 고속회선으로 증설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5대도시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전국 1백여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이텔 전용통신소프트웨어 “앞으로”(APRO)의 보급에 나서고 사용자의 PC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차세대통신프로그램 “힘”(HIM)도 개발해 10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PC통신은 앞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서비스 추진팀을 연내에 발족, 서비스 차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전국 31개지역 고속모뎀서비스 실시

저희 한국PC통신에서는 대국민 정보 마인드 확산과 지방 이용자들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해 전국3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14,400bps의 고속모뎀 서비스를 실시 한다. 오는 9월 25일(일) 00시를 기해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지역에 개통되는 14,400bps 고속접속전화는 위 5개 도시외에 26개 인접지역에서 시내전화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총 31개 지역이용자의 고속모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14,400bps고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2,400bps서비스 이용시에 비해 속도면에서는 6배이상, 전화요금에서는 80%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월 통신요금 2만을 납부하는 이용자의 경우 월간 1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PC통신은 이번 5개도시 고속서비스 실시이후 11월 30일까지 제주, 여수, 춘천지역을 포함하는 7개지역을 추가 개통하여, 총 12개지역에 접속전화를 확보, 100여개 지역에서 이용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1차 개통되는 5개지역의 접속전화번호는 차후 공지할 예정이며 시내전화요금으로 접속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부 산	김해, 양산, 진해
대 구	칠곡, 성주, 고령, 청도, 하양, 군위
대 전	금산, 청주, 조치원, 논산
광 주	나주, 함평, 장성, 화순
전 주	이리, 청주, 김제, 임실, 진안, 논산, 금산

## 에 이 텔

### 통신상의 대화폭력/음란행위에 대한 규제방침 안내

신문, 방송, 도서 등과 마찬가지로 PC통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매체입니다. 따라서 게재내용이나 통신대화중에 욕설이 포함되거나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는 것이며 용납될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요근래 PC통신을 통해 빈번히 또 상습적으로 <대화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저희 POS-Serve는 대다수 POS-Serve 회원분들개인의 명예유지권과 원활한 대중매체 이용권을 보호하고 얼굴없는 통신의 해악적 병폐요소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상의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강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특별법안>에서는 전화, 우편, 컴퓨터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폭력> 사태를 포함한 <통신예절 위반>에 대한 저희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POS-Serve에서는 '건전하고 올바른 통신자세'로 좀 더 보람있고 쾌적한 통신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통신예절 위반 해당사례

- 욕설, 거친 언사, 외설스런 표현, 심한 장난, 특정회원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해당

자료 (영상자료, 프로그램 등)를 통신을 통해 발송, 유포해서 타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저작자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시 출처를 밝힌 경우는 제외)
- ID를 도용한 경우

#### ♣ 통신예절 위반시 저희의 규제방침

- 이용약관 제11조 가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나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의 경우, 제9조 사항 (기타 제11조의 위배 등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해 회사는 사전통지없이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취소 및 서비스 이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통신예절 위반회원으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 통신예절 위반사건이 발생한 날짜·시각/서비스 메뉴/목적한 회원/위반내용을 갈무리 파일과 함께 <센터앞 메일> (GO CMAIL)로 송신해주시십시오.

## 나 우 콤

### 나우콤, 윈도우 통신SW 무료 배포

국내 PC통신업계의 셋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우콤(대표 강창훈)이 최근 개발한 윈도우 전용 에뮬레이터(통신소프트웨어) '나우로-

WIN'의 보급시기를 앞당겨 무료 배포에 들어갔다. 나우콤은 당초 이 소프트웨어를 오는 10월부터 보급할계획이었으나 자사의 PC통신서비스인 '나우누리'(구명칭: K3)의 유료화시기와 겹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결정을 내렸다.

## 생산기술연구원

### 공업기반기술 개발 기업주도로 바뀐다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이 기업주도의 기술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발표한 '94년도 3차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신청결과에 따르면 기술개발 지원대상 공고 과제 54건중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개발주관기관으로 지원을 신청한 과제수가 49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73건의 67.1%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에 비해 정부출연 연구소가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과제는 11건으로 15.1%, 대학이 주관하는 개발과제는 8건으로 11.0%, 기타 5건 6.8%로 나타나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주도하는 개발과제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24.7%, 섬유화학 23.2%, 정보통신 21.9%, 기계자동화 19.2%, 금속재료 11.0%의 순으로 나타나 기술개발 수명주기의 변화가 빠른 전기. 전자와 정보통신 기술분야가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 중앙일보

국제데이터베이스쇼 관람객들, '중앙일보 전자신문'에 관심집중

중앙일보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앙일보 전자신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13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막 이틀째로 접어든 "서울국제 데이터베이스쇼" (DATABASE SEOUL94) 중앙일보사 부스에 21세기 첨단신문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첫날인 12일 8천 8백여명의 관람객이 대형 멀티스크린과 PC를 통해 뉴스를 비롯, 쇼핑·예약·날씨. 증권시세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일보 전자신문'의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보고 첨단신문의 기능을 실감한데 이어 13일에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쏠렸다.

12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윤동윤 체신부장관·장경우 국회 체신과학위원장·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등 각계인사들에 이어 13일 정보통신업계및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중앙일보 전자신문'의 첨단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고, 기술개발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

### 한국경제신문, '다산기술상' 수상자 선정

한국경제신문사는 14일 제3회 다산기술상 대상 수상자로 삼성전자 정보통신시스템본부 유의선 실장을 선정, 시상했다. 또 모던인스트루먼트 현 광철사장과 동아전기 전원연구소 백병덕선임연구원을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인 유의선은 국내 취약 기술분야인 무선 및 데이터전송기기의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아날로그셀룰라와 페이지시스템, 고속다중화장치를 개발해 막대한 수입대체 성과를 거두는 한편 통신시장개방

에 적극 대처한 업적이 크게 평가받았다. 한국경제신문사는 국내 산업의 기술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2년 다산기술상을 제정, 매년 9월 시상하고 있다. **DB**

◇ 신규 회원 가입 현황 ◇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대표자 : 원장 이재명

주소 : 137-1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한국교총빌딩)

전화 : 02-5708-862 전 송 : 02-572-2011

- 주요업무 : ○ 건설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선진건설기술을 도입, 연구 및 보급  
 ○ 건설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관리 및 보급  
 ○ 건설기술에 관한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 개발  
 ○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정관리의 연구발전  
 ○ 건설기술연구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항  
 ○ 건설진흥에 관한 연구에 부대사업  
 ○ 건설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축적·가공·온라인서비스

설립연월일 : 1983년 5월 17일

데이터베이스 관련부서 : 건설기술정보센터

총종업원수 : 305명

기관성격 : 건설부산하기관

■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관명 :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Dong Ah Construction industrial Co., LTD)

대표자 : 시장 유성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전화 : 02-771-2100 전 송 : 775-4155

- 주요업무 : 1. 당사 건설기술연구 및 특허 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공사연혁정보 DATABASE 구축 및 CD-ROM 제작  
 3.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분류 표준화 사업 자문  
 4. 국내의 건설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  
 5. 건설 화상정보의 DATABASE구축 연구  
 6.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원가절감 및 건설 KNOW-HOW 부문에 대한 견적  
 7. 공정 및 시공 관리의 표준화 및 DATABASE 구축 연구  
 8. EC화를 위한 설계/공학 시스템 기술개발연구 및 지원  
 9. 컴퓨터통합건설(CIC) 단위 시스템 개발, 지원 및 시스템간 통합화 구축  
 10. 전산 통합기술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설립연월일 : 1945년 8월 20일

데이터베이스관련부서 : 기술연구소 데이터베이스팀

총종업원수 : 2,800명

기관성격 : 주식회사